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 정 록



'월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고 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고, 좋은 시작은 절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속담이다. 그러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떡잎은 어떤 색깔일까?

공동혁신도시 개발 컨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와 범위가 정해진 것이 지구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여업집에서도 새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집터를 장만한다. 2

공동혁신도시, 떡잎의 색깔은?

총 양육인가 아니면 1층 한옥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그리고 새집의 규모와 배치를 고려해 그에 걸맞은 부지를 마련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공동혁신도시가 추구하는 도시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30만평의 위치와 범위가 산정돼야 한다. 그러나 공동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혁신도시의 비전과 컨셉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구지정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혁신도시에는 17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가족,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게 된다. 또한, 나주시 급전면 일대에 살

고 있는 주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과 원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관심을 갖는 지역 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공청회는 고사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는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셋째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지구지정을 일사천리로

광주방향으로 옮긴다고 한다. 위치와 면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대신에 합당한 논리와 이유를 제시해 지역민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 공동혁신도시가 두 사람만의 전리품이 아니라면, 약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치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공동혁신도시가 성공하길 바란다.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인구를 증가시키고, 관련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갖도록 재편될 것이다. 실제로 나주의 공동혁신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명품도시로 만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공동혁신도시 성공의 첫걸음은 미래형 도시컨셉 설정과 그에 합당한 개발지구 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첫걸음을 내딛는 공동혁신도시의 떡잎 색깔이 이런지 이유를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지구지정 과정의 모호성과 비공개성, 뜬금없는 위치변경 등이 떡잎 색깔을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혁신도시의 떡잎 색깔에 대한 필자의 걱정이 한낱 기우에 그칠지 기대할 뿐이다. 하지만, '도 농사가 반(半) 농사다'는 말처럼, 풍년이 되려면 우선 '도 농사'가 잘 돼야 한다. 이는 농부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전남대 교수, 대한지리학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벼랑 끝 '서민경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올 들어 6월 현재 개인과산 신청자가 5만명을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6배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소득과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유가, 날로 이자 부담이 커가는 금리, 들쭉이는 물가 등은 서민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느낌이다.

문제는 최악의 상태인 서민경제가 내년에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내년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4%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회복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소도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설 경기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며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년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고달로질게 변

한다. 일자리 창출 속도가 더디고 성장률이 수축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까지 하락하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은 경기침체 국면이 아니며 잠시 둔화하는 정도로 올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다"라는 한가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도 선거 때는 소리 높여 '민생경제'를 외치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내년 대선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생활고로 길거리로 나왔는 서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권이 어찌고 이념이 어찌니 하며 말싸움이나 할 때인가. 지난 5·31 지방선거와 7·25 재보선의 결과는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참신하고 능력있는 교육위원 선출해야

교육위원선거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오글 오글 치러진다.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위원을 비록 간접선거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지방교육의 특성화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학에 분야의 지방의회다. 임기 4년의 교육위원회에게는 교육정책의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교육감을 감사·견제하는 막중한 권한이 주어진다.

불행히도 이번 광주·전남 교육위원 선거전은 사상 최악의 불법선거운동을 기록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봉 5천만원의 유급제가 처음 도입돼 후보가 난립하면서 항응과 금품 제공, 비방 음해 등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했고 출석기와 평가가기도 황폐했다. 선거전 앙상도 특이해 선거 결과가

어는 때보다 중요해졌다. 교총과 전교조 등이 색깔 논쟁을 일으켰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발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종전과 달리 독자 후보를 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등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시·도민들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교육위원이 선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품 살포와 항응 제공 등 불법선거를 주도하고 출석기와 평가가기도 앞장선 후보가 선출되어서는 교육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들이 각종 이권과 청탁에 개입해선 그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계 전반으로 돌아오게 된다.

교원 및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 선거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동물농장' '1984'로 유명한 미래 사회를 예견했던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작품 중 '카탈로니아의 찬가'가 있다. 무대는 스페인 내전(1936~1939). 종군 기자로 전쟁터에 파견됐던 오웰은 파시스트 프랑코 장군에 맞선 혁명의 열정에 반해 좌파 공화정부의 의용군에 자원 입대했다.

그러나 열정으로 시작된 그의 전쟁 참여는 파국으로 끝난다. 내전의 와중에도 공화 정부의 각 정파는 권력 암투에 몰입했다. 소련 공산당은 공화정부를 지지하면서 수도 서구 열강들과의 외교 줄타기에 스페인 내전을 이용했다. 오웰 자신도 소련의 공작을 받은 스페인 산당에 의해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누명을 쓴 채 가까스로 스페인을 탈출했다.

'카탈로니아의 찬가'는 바로 오웰 자신의 내전 체험기로 정치 투포다. 이 책에는 평화의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혁명의 장밋빛 약속과 권력의 배반, 그로부터 비롯된 좌절과 환멸이 잘

그러져 있다. 결과를 불문하고 스페인 내전은 20세기 양심의 경연장이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화정부 수호라는 단 하나의 대의를 위해 스페인으로 향했다. 아니 스페인 장군에 맞선 혁명의 열정에 반해 좌파 공화정부의 의용군에 자원 입대했다. 그러나 내전의 결과는 공화정부의 패배였다.

지난 18일은 스페인 내전이 시작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다. 스페인 내전은 33개월 동안 모두 60여 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내전 이후 프랑코가 죽은 1975년까지

스페인은 유럽의 연방으로 전락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내전의 기억은 희미해졌다. 그러나 인종·종교간 갈등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렸던 젊은이들의 열정만큼은 한번쯤 되새겨 볼만하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스페인 내전



법조 칼럼

이 명 철



얼마 전 말바우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두 여인이 법정에 들어섰다. 한 여인은 원고서, 다른 여인은 피고서에 앉았다. 원고에게 소송 제기 이유를 물었다. 원고는 "자신이 말바우 시장에 있는 노점을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피고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자리도 비워 주지 않아 법에 호소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번엔 피고에게 원고 말이 맞는지 물었다. 피고는 "자신이 자리를 임차한 것은 맞지만 장사가 하도 안 돼서 임대료를 줄 수 없었고, 그 자리는 국가 땅인데 왜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원고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판사님,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재판까지 오게 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연들이 있다. 오죽 답답하면 법대로 하자고 법원까지 왔겠는가? 그 사연을 모두 풀어놓지 못하고 남이 써준 서류만 가지고 판결을 받는다면 과연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살아 있는 재판을 하는 것.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판사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충분히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가지는 것. 바로 구술변론주의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라고 부르지만 그 기본 정신은 같다.

구술변론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법원

말바우 시장 사건에 관한 단상

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4시에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파 흘러서 잡은 자리"라고 호소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구술변론주의, 즉 말로 하는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두 여인이 과거에 재판을 받았다면 좀 달랐을 것이다. 과거에는 서류에 의존한 재판이었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갔다. 한 재판에 몇 번 걸리지 않았다. 판사도 짐부실에서 서류를 읽고 그것에 따라 판결을 했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전부죄, 전판예우 논란도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소송 서류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은 생략된 거기에 숨

은 ▲간단한 사건 ▲조정 화해에 적합한 사건 ▲충실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 등으로 차별화해 사건을 관리하고, 시차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중인은 대질신문이 가능하도록 일괄 소환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법원을 찾는 국민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억울함을 하소연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 풀어놓으시라. 법원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말바우 시장 사건은 몇 차례 구술변론을 거친 끝에 서로 오해를 풀었다. 원만히 조정이 성립돼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을 지우고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말한다.

판사는 이럴 때 제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두 여인이여, 행복하시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여성운전자 자동차 운전시 운동화 신는 지혜 필요

통급으로 된 신발이나 얇은 구두,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운동화 등을 착용한 채 운전하는 여성들이 많다.

운전을 할 때에는 발의 움직임이나 힘의 조절이 중요해, 굽이 두꺼운 신발이나 큰 끈을 신발은 신으면 감각이 떨어져서 운전시의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진다.

또 뒷굽이 높은 신발은 페달과 페달 사이를 움직일 때 굽이 걸리기 쉽고 페달을 밟을 때도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신발을 신고 운행했다가는 운전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에게는 더할 나위도 없다.

개성도 좋지만 운전을 하는 데에 지장을 준다면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차 안에 간편한 운동화를 비치하여 운전할 때 갈아 신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민석·광주시 광산구 서동봉

기록의 날

지난 2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는 제 1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당초 43일(8월 17일~9월 28일)간 15억원 규모로 축제를 진행하려 했으나 '남비싱 행사'라는 이유로 시비·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결국 기업체 협찬금과 티켓 판매금을 포함 7억 5천만원으로 이번 축

미 개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우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오페라단의 '아이다'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말라 교향곡' 연주회 역시 외국 스타들이 참가하는 것을 빼면 원래부터 예정된 공연이었다.

자체 기획 공연은 불소이발레단의 주역무용수들이 참여하는 갈라공연, 다이스 카쉬모도 초청 바이올린 연주회, 연

공연예술제 허장성세

제를 꾸리려 했다.

공연 축제의 하이лай트는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느냐는 것. 올해의 경우 당초보다 예산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작품 수가 기대보다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주최측이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무임승차 한 듯한' 인상을 감출 수가 없다.

프로그램중에는 '조수미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초청 공연', '유기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뮤지컬 '아이 러브 유', '점프'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공연예술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작품들이다. 이미 광주 지역 민간 기획사들이 자체 기획을 통해 '사 놓은' 공연들이다. '아이 러브 유'는 시내에 부착된 벽보를 통해 이



김 미 은

<문화생활부 차장>

극 '다시래기' 등 몇편에 불과하다.

결국 시민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선사하기 보다는 이미 공연 스케줄이 잡힌 작품들을 끌어다 축제와 같은 기간에 공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버젓이 '프로그램'이라고 발표할 셈이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착해 무조건 행사를 크게 벌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갈포장만 번지르르한 이같은 기획으로는 주최측이 그렇게 원하는 시비와 국비 확보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준비 부족에 대한 뼈 아픈 반성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mekim@kwangju.co.kr

감면카드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면서 감면 카드를 제시했다가 본인 탑승 및 등록 차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도로 공사 직원들 때문에 불쾌했다는 고객들이 많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6급,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나 50%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이들에게 감면된 요금만 1천21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할인 혜택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도 할인을

받으려고 한다. 적발될 경우 정상 통행료 및 부가 통행료(할인 받고자 했던 통행료의 10배)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도로공사도 이들을 막기 위해 감면 카드 제출 고객에 대해 본인 탑승 및 식별 표지 부착이나 소지 여부를 비롯,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감면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직원들의 확인절차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던 이용자들이 있다면 이같은 점을 알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현민·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광산구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사 회 1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사 회 2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8>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설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